나주 어린이·청소년 행사 북적… ‘미래형 콘텐츠’ 인기

JCIA, 메타버스 체험존 등 호평
청소년 미래산업 체험 기회 제공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은 최근 열린 ‘2025년 나주 어린이 큰잔치’와 ‘제1회 나주시 청소년의 날 기념 싹싹나주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미래형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아동·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미래형 디지털 체험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소통·성장의 장이 마련됐다.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잔치에서는 식전공연, 어린이 헌장 낭독, 모범 어린이 표창 등 공식행사와 함께 JCIA의 메타버스 홍보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1층에 △빛가람호수공원 에너지파크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디지털 섬·바다·정원 서비스 △가상 체육 시스템 등 4종의 체험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특히 태블릿과 인터랙티브 기기를 활용한 메타버스 체험에는 각각 13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해 다양한 미래형 콘텐츠를 경험했다.

특히 모션 인식 기반의 가상 체육 시스템은 높은 회전율과 현장 밀착형 운영으로 참가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산업 메타버스 소개하는 체험도 눈길을 끌었다. ‘제1회 나주시 청소년의 날 기념 싹싹나주 청소년 문화축제’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청소년 댄스·밴드·오케스트라 등 10개 팀의 무대,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의 날 선포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예술창작·진로탐색·디지털체험 등 23개 체험부스와 마음 건강 버스 등 부대시설은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JCIA는 메타버스 허브센터, 지원센터 등 메타버스 센터들의 우수 성과를 바탕으로 앞선 어린이날 행사와 동일한 인터랙티브 기기, 태블릿 콘텐츠를 활용한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산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메타버스 지원센터와 허브센터가 전국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아동·청소년이 첨단 디지털 문화를 쉽게 접하고 창의적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최근 빛가람호수공원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에서 열린 메타버스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JCIA 제공

“나만의 핏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3일부터 8일까지 남성 패션 특별 프로모션인 ‘맨즈위크’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캠브리지 멤버스 매장에서는 ‘나만의 핏’을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맞춤 정장(MTM) 10% 할인 혜택과 더불어 2025년 S/S 상품 20% 할인 시즌오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롯데 광주점 제공

나주 강소특구 에너지기업들, 해외진출 속도

전대기술지주-한전 사업단 MOU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강소특구육성사업단과 글로벌 투자사 협력·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나주 강소특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첨단강의실에서 열린 나주 강소특구 소재 에너지 혁신기업들의 IR(투자유치) 행사 이후 진행됐다.

IR 발표에는 나주 강소특구에 위치한 에너지 혁신기업 6곳이 참석했다.

분산 재생 에너지 플랫폼·드론 활용 태양광 설비 관리·수전해 및 수소연료전지 소재 개발·소수력 기반 클린에너지 플랫폼·이차전지 배터리 패킹 및 ESS(에너지 저장장치)·빌딩일체형 태양광에너지 플랫폼 등 전 세계적인 RE100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의 발표 이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점검하고, 1:1 밋업을 통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투자사는 국내 대표 기후테크·지속 가능성 분야 투자사인 소풍벤처스·MYSC, 지역 기반 에너지기업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인라이트벤처스·전남창업기술지주 등이다. 해외 기반 글로벌 투자사인 AGCC와 SimSan Ventures도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이어진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한국전력공사 강소특구육성사업단과 AGCC Korea, SimSan Ventures가 함께 했다.

AGCC는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투자사로 아랍에미리트를 기반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SimSan Ventures는 런던에 본사를 뒀다. 유럽과 인도를 포함한 서아시아 등의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에너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전력공사 강소특구육성사업단 오창수 단장은 “나주강소특구 에너지 혁신 스타트업의 IR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협약을 체결한 글로벌 투자사들과 협력해 더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뿌리산업 지원에 주거비·건강검진비 ‘관심’

경총 “근속·복지지원 확대 필요”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광주시와 함께 추진 중인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에서 근로자 대상 주거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분야에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뿌리기업의 인력난과 이직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로, 정규직 채용 인건비, 장기근속 장려금, 복지시설 개선, 주거비, 건강검진비 등 근로자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근로자 주거비(월 최대 30만 원, 최대 6개월)와 건강검진비(1인당 최대 30만 원) 항목은 사업 초기부터 참여 문의가 집중되며 조기 마감이 우려될 정도로 수요가 높다.

특히 이직률이 높은 뿌리산업 현장에서 ‘거주 안정’과 ‘건강관리’는 장기근속 유지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지역 뿌리산업은 자동차, 가전, 금속부품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고금리·수요 둔화·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 요인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기업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진정한 고용 유지가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반영과 유관 기관 간 연계사업 발굴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DH 오토웨어 북미 법인, 1조원대 대규모 수주 체결 ‘성과’

자율주행차 부품 전문기업 DH오토웨어 북미 법인이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DH오토웨어는 북미법인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의 멕시코 생산법인으로부터 대규모 차세대 차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제어기 부품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5년간 차량 339만대분 물량으로 1조 원 단위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를 기점으로 DH오토웨어의 북미시장 내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DH오토웨어는 지난 2023년 6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7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추가 대형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거래 상대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핵심 부품사로 멕시코 생산법인은 북미 생산거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DH오토웨어의 기술력과 납품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로 평가된다.

수주한 제품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차량에 적용할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제어기의 핵심 부품이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 제공뿐 아니라 공조·조명 제어, 내비게이션 연동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며 자율주행차에서 필수적인 정보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다.

DH오토웨어는 북미 현지화를 위해 지난해 멕시코 공장을 설립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제품 납품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onnect S/L 제어기 부품 수주가 더해지면서 DH오토웨어는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안정적인 추가 매출을 확보하게 됐다.

DH오토웨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자동차부품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멕시코공장의 대규모 수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올해부터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고부가 자율주행 핵심부품이 본격 납품됨에 따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 북미법인은 연간 최대 8,000억 원 매출이 가능한 CAPA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 대응에도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승현 기자